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

이수홍**

| 목 차 |

- I. 머리말
- II.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단상
- III.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유적 개요
- IV. 지리·지형적 특징: 문화의 접경지
- V. 부산 청동기시대 무덤의 구조적인 특징
- VI. 출토유물의 특징
- VII. 맺음말

| 국문초록 |

부산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7곳의 유적에서 59기의 청동기시대 무덤이 확인·조사되었다. 매장주체부가 확인된 무덤은 47기이다. 조사된 유구는 적지만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다양한 편이다.

청동기시대 후기 부산은 서쪽에서 전파된 송국리문화와 북쪽의 영향을 받은 김대리문화의 접경지역이다. 무덤에서도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송국리문화 분

* 본고는 필자가 2019년 부산박물관에서 개최한 제40회 부산 시민의 날 기념 2019 학술 심포지엄에서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당시 글에서 II장을 삭제하고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의 문제점을 추가하였고, 부산지역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V장과 VI장에서 경남·대구지역 무덤의 사례를 보완하였다.

** 울산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 실장 / soohong0705@hanmail.net

포권의 다양한 무덤이 확인되기도 하고 기장군을 비롯한 북동쪽에는 무덤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집단리문화의 특징을 보인다.

구조적으로는 할석석관묘가 21기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판석석관묘는 9기, 토광묘가 17기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토광묘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네 벽면을 판석으로 조립한 판석석관묘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또 다른 구조적인 특징은 단벽쪽에 유물부장칸을 별도로 마련한 무덤의 비율이 높은 점이다. 최근 온천 2구역에서 매장주체부가 없는 묘역식지석묘가 조사되었는데 필자는 최초 무덤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덤의 부장 특징은 석검이나, 석촉, 토기가 부장되는 무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부산지역에서 출토되는 적색마연토기는 바닥에 굽이 있으며 편평하고, 동체가 장란형이며 직선적인 구경부가 있는 형태인데, 다른 지역에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부산지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지역성을 가지는 것으로 ‘부산식토기’ 혹은 출토된 유적명을 차용해 ‘연지동식토기’ 등으로 불리어도 무방하다. 또 손잡이의 끝부분이 지나치게 길게 제작되어 실용성을 상실한 소위 ‘병부과장식석검’의 출토지이기도 하다.

주제어: 부산,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의 접경지, 부산식 적색마연토기(연지동식토기).

I. 머리말

부산은 국가유산법이 엄격히 적용되기 전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 개발이 진행되어 매장유산이 온전히 조사된 사례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유적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해안을 끼고 있고, 동해안문화와 남해안문화가 만나는 곳이라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분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석기시대부터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구석기시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다수의 유적이 부산에 분포하지만, 해안가에 자리 잡은 신석기시대의 여러 패총, 복천동·연산동고분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 고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인데,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 유적의 조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 부산 청동기시대 연구 자료는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무덤 혹은 지표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서구 미음동의 경제자유구역 건설지, 부산진구 연지동 구 하야리아 부대 시민공원 조성부지, 금정구 두구동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부지, 동래구 온천동 재개발사업부지 등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무덤이 조사되는 등 조사 사례가 증가하여 부산의 청동기시대 문화도 점차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청동기시대 자료에 대해서는 정정원(1991, 1995), 하인수(1997)에 의해 자료가 정리된 바가 있다. 이후 서영남(2001)은 부산지역의 자료를 망라하여 입지, 분포, 무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 발견·수습된 자료가 소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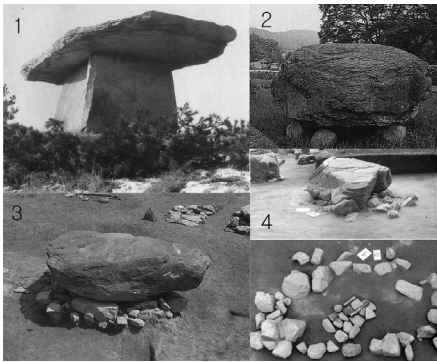
이후 발굴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필자는 부산지역의 자료를 망라하여 청동기시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배진성은 부산지역의 특징적인 토기인 적색마연호형토기에 대해 상세하게 접근하였다. 부산지역 무덤문화의 특징은 석관묘에 부장칸이 있는 사례가 많은 점, 특유의 호형적색마연토기가 부장되는 점 등이 알려져 있다(이수홍 2012b, 배진성 2020).

본 고에서는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무덤을 모두 망라하여 부산의 청동기시대 무덤문화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무덤을 통해 부산지역 청동기시대의 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바라볼 때가 되었다.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경남과 대구지역의 주요 무덤유적을 같이 검토하여 비교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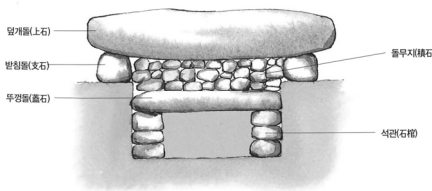
1) 본고의 시기구분은 청동기시대를 조기-전기-후기로 구분하는 안(안재호 2006)을 따른

Ⅱ.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단상

청동기시대 무덤은 고인돌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인돌은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으로 크게 구분한다. 최근에는 위석식을 추가하여 <그림 1>과 같이 네 종류로 구분하는데, 이 분류안이 아직까지 공고한 것 같다.



<그림 1> 지석묘 분류(1:탁자식, 2:기반식, 3:개석식, 4:위석식)



<그림 2> 일반적인 지석묘의 구조
(대성동고분박물관 2012)

고인돌은 한자어로 지석묘라고 한다. 지석묘는 그림 2와 같이 지하의 무덤방, 무덤방을 덮는 개석, 그 위에 상석을 받치는 지석, 상석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탁자식은 지하식의 무덤방이 없고 상석을 받치는 지석이 무덤방의 역할을 한다. 위석식은 바닥에 작은 지석을 놓고 그 위에 상석을 얹은 구조이다. 시신을 바로 눕혔던 것이 아니라 화장한 뼈를 안치한 것 같다.

지석묘라는 용어에는 문제가 많다. 지석묘 용어 자체는 대개 상석과 지석이 있는 무덤을 가리키는데, 대부분의

다. 조기는 미사리유형, 전기는 가락동유형·혼암리유형, 후기는 송곡리유형·검단리유형을 말한다. 세형동검문화로 대표되는 괴정동유형은 초기철기시대에 해당되는데, 본고에서는 두구동 임석유적 토광묘와 같이 초기철기시대에 축조되었지만 청동기시대부터 축조된 무덤 형태를 보이는 것은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지석묘에 상석 및 상석을 받치는 지석(받침돌)이 없다. 또, 상석이 없는 데 돌로 묘역을 갖춘 무덤을 묘역식지석묘라고 부른다. 지석과 상석이 없는데도 지석묘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묘역식지석묘에 상석이 있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지석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영남지역에서 지석묘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최종규 2023). 용어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주장이다. 또, 온천2구역에서 조사된 묘역식지석묘와 같이 매장주체부가 없는 것이 있는데 소위 제단식지석묘라고 불리기도 한다(김병섭 2009). 정말로 무덤이 아니고 제단으로만 이용되었는지 의문이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애초에 무덤으로 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동기시대 하면 떠오르는 무덤이 지석묘라지만, 이 시대의 무덤 유적을 조사하면 지석묘보다 석관묘나 (석개)토광묘가 훨씬 많다. 이 외 옹관묘도 있으며, 나무로 관을 짠 무덤도 있다.

또, 토광묘와 석개토광묘를 구분할 수 있는가? 석개토광묘의 상부가 유실되면 토광묘로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잔존상태가 양호해 개석이 남아있으면 석개토광묘, 묘광이 얇게 남아있어 개석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데도 발굴 당시 개석이 없다고 석개토광묘가 아닌 토광묘라고 부른다. 또, 이런 토광묘의 벽에 돌이 놓여 있는 경우 목관의 유무를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진주 가호동유적에서는 토광묘 바닥에 목관의 흔적이 잔존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목관의 흔적은 목관의 유무와 관련없이 나무의 흔적이 잘 잔존하는 토양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축조당시에 목관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무덤 축조 당시 목관을 사용했는데, 목재인 관의 흔적이 잔존하는 토양에서 조사된 유구는 목관묘이고 그렇지 않은 토양에서 조사된 유구는 토광묘라고 하는 게 지금의 실정이다. 물론, 지금 필자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무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고

에서는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것을 토광묘, 벽면에 돌이 엉성하게 놓여 있는 것을 할석토광묘라고 하겠다. 할석토광묘에서 확인되는 돌은 목관이나 시신을 감싼 유기질의 시설물과 벽면 사이를 충전하기 위해 놓았던 것일 가능성이 있고, 개석 사이에 있던 돌이 함몰했던 것일 수도 있다.²⁾

여기에 주거가 무덤으로 전용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무덤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기존의 무덤 분류체계, 용어로는 폭증하는 자료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석묘의 하부구조가 석관인데, 우리는 지석묘 00기, 석관묘 00기가 조사되었다고 한다. 지석묘는 매장주체부의 상부 구조에 중점을 둔 용어이며, 석관묘는 매장주체부의 구조(재질)에 중점을 둔 용어이므로 한 분류체계로 혼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외에 무덤의 영역을 표시한 구획묘라는 입장에서 돌을 이용한 묘역식지석묘와 도랑으로 묘역을 표현한 주구묘로 나눌 수 있다.

즉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한 무덤 1기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무덤 중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분절유적 5호묘는 구획묘 중 묘역식지석묘이면서 매장주체부는 할석석관묘이다. 기존의 분류 안에 증가하는 자료를 확립적으로 대입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런 용어상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III장부터 부산지역의 무덤 양상을 살펴보겠다.

2) 기존의 토광묘와 석개토광묘를 토광묘, 할석토광묘로 수정하였다. 석개토광묘의 상부가 유실되면 토광묘가 되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지만, 더 좋은 용어가 있는지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Ⅲ.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유적 개요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청동기시대 무덤이 확인된 곳은 장전동유적이 다³⁾. 일제강점기인 1935년 남방식지석묘(기반식지석묘)에서 석검 1점과 검파두식 1점이 출토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 1960년대에 공사 중 혹은 동네 주민들에 의해 감천동유적, 사직동유적, 괴정 2동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본격적으로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7년 두구동 임석유적이 최초라고 할 수 있겠다. 그 후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현재까지 17곳의 유적에서 5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 조사를 통해 무덤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진 유적은 <표 1>과 같다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매장주체부의 구조가 할석석관, 판석석관, 토광 등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석을 갖춘 지석묘가 정식발굴조사된 사례는 없지만 감천동지석묘나 가덕도 두문 지석묘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상석이 있는 전형적인 지석묘도 분포했을 것이다. 분절유적과 온천2구역 유적에서는 묘역을 갖춘 소위 묘역식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이런 형태의 묘역식지석묘는 남부지역 각지에 분포하는데 부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석대동유적에서는 ‘ㄷ’자형으로 잔존하는 구가 확인되었는데, 필자는 주구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매장주체부는 유실되어 알 수 없다. 아직 부산에서 청동기시대 옹관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3)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잘 소개되어 있다. 鄭澄元, 『제2절 선사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 4, 부산시, 1991;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1997; 서영남, 『釜山の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港都釜山』 17,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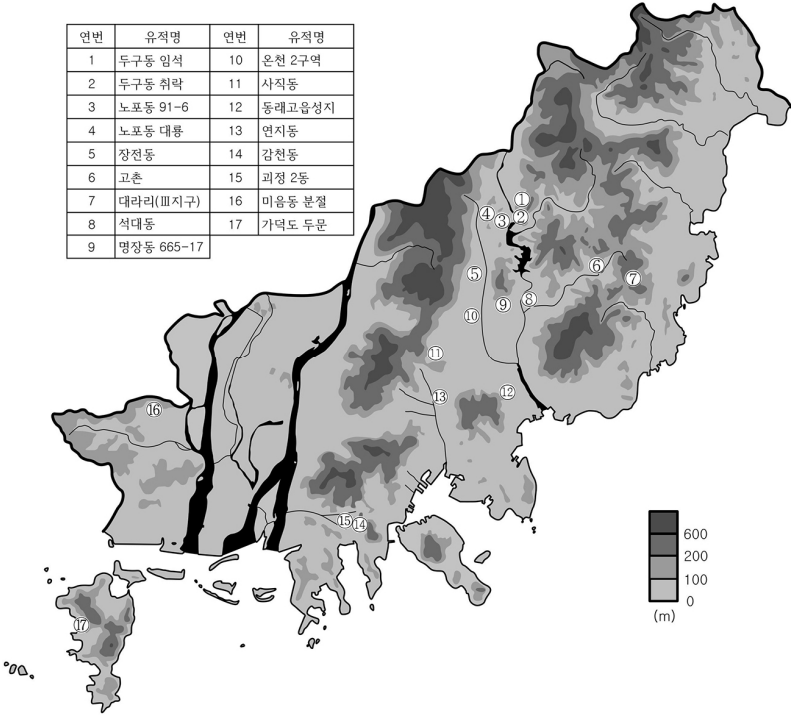
4) 석대동, 분절유적, 연지동유적은 필자의 구고(2012) 제원표와 유구 호수, 규격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발굴조사 약식보고서를 참고하였는데 보고서가 간행될 때 호수 변경이 있었고, 규격은 당시 필자가 약식보고서와 유구실측도를 직접 보면서 기재하였는데 최종보고서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표 1〉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무덤
(연번은 〈그림 1〉의 유적번호와 동일함)

연번	유적명	호수	매장주체부		규모(cm)			시상	개석	묘역	출토유물	비고	조사 기관
			위치	구조	장	단	심						
1	두구동임석 토광묘		지하	할석토광?	300	105	70	○			석검, 검파두식		부산박
2	두구동 취락	1	지하	할석석관	242	141	74		○		호형적색 토기	부장칸	동아 세아
3	노포동 91-6번지	1	지하	할석석관	244	90	56		○				동양문
4	노포동대릉 석관묘		지하	판석석관	97	42							부산대
5	장전동 석관묘		지하	판석석관					○		석검, 검파두식		수습
6	고촌유적 토광묘		지하	토광	210	72	7		×		석검, 석촉, 적색마연		경문연
7	대라리		지하	판석석관	222	130	51	○	?				경문연
8	석대동	17	지하	할석석관	296	134	68	○	?		석촉, 호형적색		울문연
		18	지하	할석석관	287	162	68				석촉		
		19	지하	할석석관	292	154	80	○			석검, 호형적색	부장칸	
		20	지하	할석석관	336	208	78	○	?		석촉	부장칸	
		21		?								주구묘	
9	명장동 556-17번지	1	지하	할석석관	170	100	40	○	×		방추차		한겨레
		2	지하	할석석관	220	115	35	○	○				
10	온천2 구역	1	지하	할석석관	480	310	30	○	○		석검, 호형적색		서울문
		2	지하	할석석관	274	158	60	○	○		호형적색	부장칸	
		3	지하	할석석관	380	235	50	○			호형적색		
		4	지하	판석석관	135	84	21	○			호형적색	부장칸	
		5	지하	판석석관	83	44	22	○					
		6	지하	판석석관	81	36	25	○					
		7	지하	판석석관	172	57	38	×			적색마연	부장칸	
		8	지하	판석석관	83	50	16	×					
		9	×	토광	130	80	54	○	○				
		10	×	토광	190	60	48	○	○				

		11	×	토광	280	70	50	○	○				
		12	×	토광	140	60	33	○	○				
		13	×	할석토광	100	50	44	○	?				
		구1	지하							장방형			
		구2	지하							장방형			
		구3	지하							장방형			
		구4	지하							방형			
		구5	지하							장방형			
11	사직동 석관묘	지하	판석석관							호형적색, 석검2		수습	
12	동래고읍성지 석관묘	지하	할석석관		50		○			호형적색	부장간	경문연	
13	연지동	나-1	지하	토광	105	40	10						
		나-2	지하	토광	116	61	28		○				
		다-1	지하	할석석관	340	176	50	○		호형적색, 석검1, 석촉2	부장간	동양문	
		다-2	지하	할석토광?	218	91	80		○	호형적색	부장간		
		다-3	지하	할석토광?	225	104	62		○	호형적색, 석촉1	부장간		
14	감천동	1支	지하	할석석관	220	90	50			일단병식석검1		수습	
		2支	지하										
		3支	?										
		4支	?										
		5支	?							이단병식석검1			
		6支	?										
15	괴정2동 석관묘	지하	할석석관	180		70		○		호형적색, 석검1, 석촉5		수습	
16	분절	1호	지하	할석토광	264	130	63		○	호형적색, 석검, 석촉4		부산박	
		2호	지하	할석석관	418	278	110	○(관대)	○	?	석검, 석촉4, 적색마연		
		3-1호	지하	할석석관	253	112	59	○	○	원형	적색마연		
		3-2호	지하	할석토광	329	92	60		○	장방형	적색마연, 석검		
		3-3호	지하	할석석관	166	84	22	○(관대)	○	원형	적색마연		
		4호	지하	할석석관	412	220	160	○(관대)	○	원형	적색마연		

		5호	지하	합석석관	224	103	38		○	장방형			
		6호	지하	합석토광	247	146	77		○	장방형	적색마면, 석축		
		7호	지하	합석석관	384	176	114		○	원형			
		8호	지하	합석토광	242	138	96		○		적색마면	부장간	
		9호	지하	합석토광	226	100	55		○	×	적색마면, 석축		
		10호	지하	토광	240	104	42		○	×	적색마면, 석축2, 방주차		
17	가덕도 두문 지석묘		상석과 지석 확인										신라대



〈그림 3〉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분포도
(숫자는 〈표 1〉의 연번과 동일함)

<그림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동기시대 무덤유적은 대체로 수영강과 그 지류인 온천천, 석대천 주변에 위치한다. 동천과 괴정천 유역에서도 일부 유적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하천과 가까운 구릉의 사면과 끝자락에 분포한다. 연지동유적이 유일하게 평지에 분포하는데 구릉 끝자락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충적지유적은 아니다.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의 북동부지역에는 활발하게 매장유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 무덤이 고촌유적에서 토광묘 1기, 대라리유적에서 판석석관묘 1기만 확인되었다. 무덤을 많이 축조하지 않았던 검단리문화의 특징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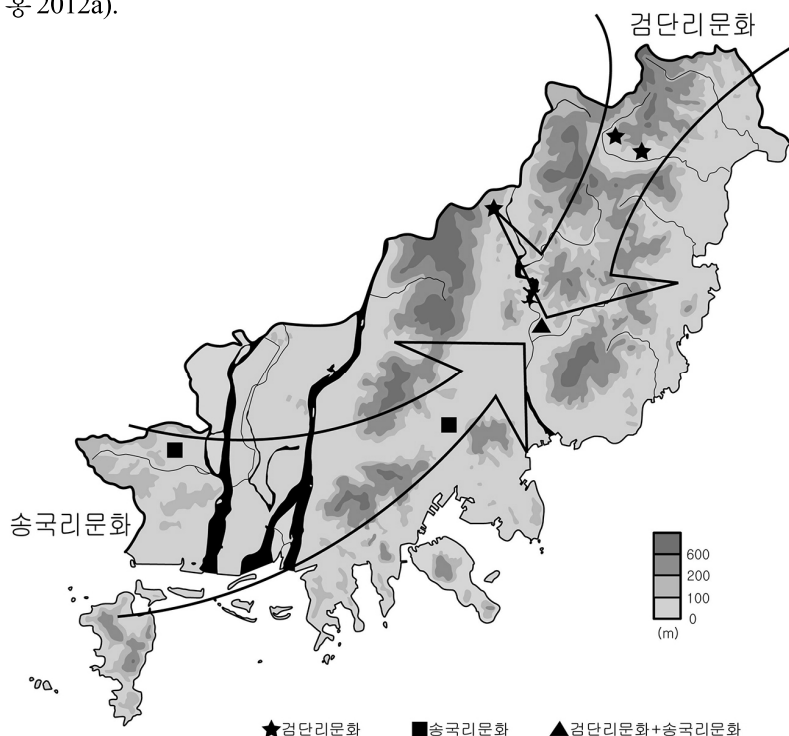
분절유적은 낙동강의 서쪽 부산과 김해의 경계지역에 위치한다. 낙동강 서쪽에 있는 유일한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이다. 김해 울하리유적과 불과 3km 떨어져 있다. 무덤의 양상, 출토유물의 현황이 인근의 울하리유적과 유사하다.

IV. 지라·지형적인 특징: 문화의 접경지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무덤은 대부분 후기에 속한다. 온천2구역 1호 석관묘 외에는 이단병식석검이 출토되지 않았고, 무경식석촉이 출토된 무덤은 확인되지 않았다. 온천2구역 1호 석관묘에서는 이단병식석검이 적색마연호형토기와 함께 출토되었지만, 후기에 해당되는 무덤이다. 청동기시대 무덤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출토된 유물보다 군집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이수홍 2015). 온천2구역은 무덤이 군집된 양상이기 때문에 후기에 축조된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유적, 그리고 조사된 유구는 모두 후기의 이미지이다. 반면 두구동 임석유적 토광묘와 분절유적의 일부 지석묘의 상부에서 점토대토기 관련 유

물이 출토되어 초기철기시대에 축조된 무덤도 있다. 본고에서는 초기철기시대나 원삼국시대에 축조된 전형적인 목관묘 이외에는 모두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부산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무덤이 59기뿐이라면 개발이 진행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많은 유적이 파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애초 청동기시대에 무덤이 타 지역에 비해 적게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김해지역은 서쪽의 송국리문화와 북동쪽의 검단리문화의 접경지이다. 검단리문화권에서는 무덤이 적게 확인되는데 화장, 세골장과 같은 이차장, 가옥장이 성행했기 때문이다(이수홍 2012a).



〈그림 4〉 부산지역 송국리문화와 검단리문화의 양상(이수홍 2012b에서 수정)

검단리문화 분포권에 가까운 기장 지역에서 아직 청동기시대 무덤이 확인된 사례가 적은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물론 최근 기장군 기장읍 내리 339-5번지 유적에서 송국리형주거지가 조사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무덤이 조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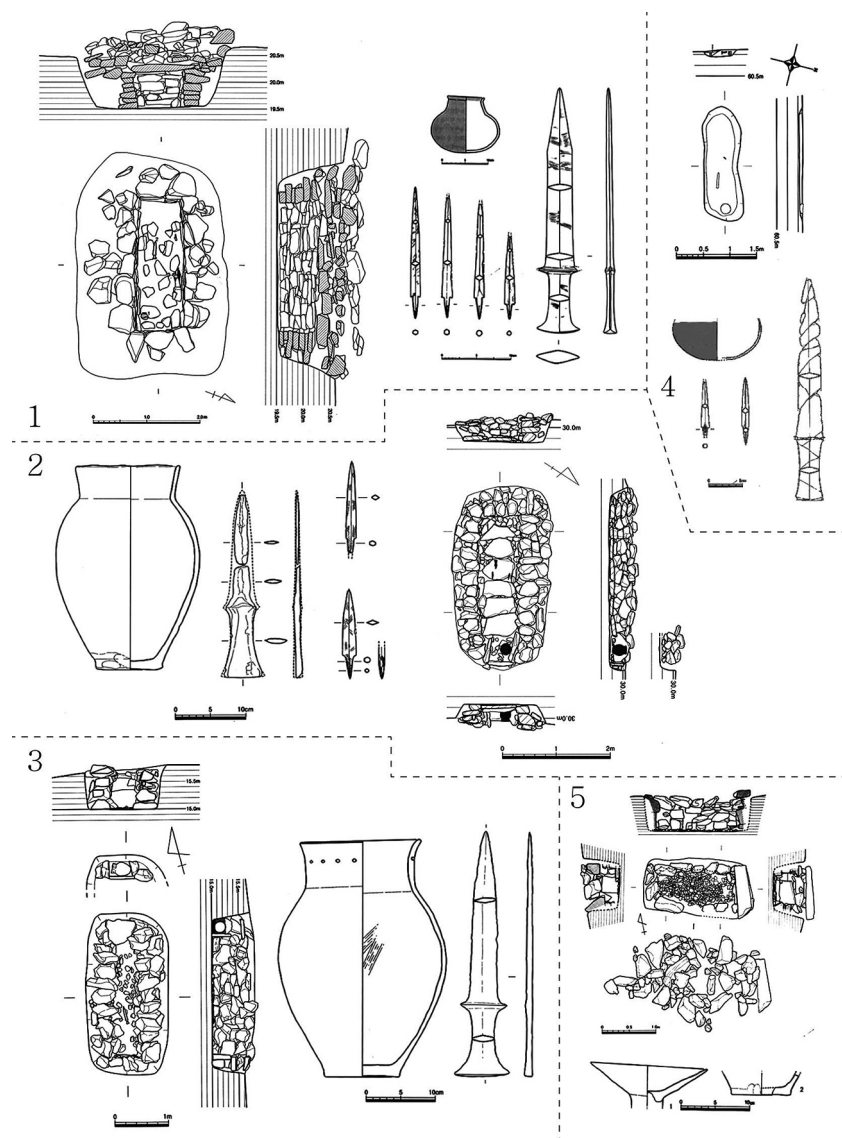
〈그림 5〉 분절유적 출토 적색마연토기

에 위치한 기장군의 일광읍, 정관읍, 장안읍에서 철마면 고촌유적 토광묘와 기장읍 대래리유적의 석관묘와 같은 청동기시대 무덤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애초에 무덤 축조가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장읍보다 더 북쪽 지역인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에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분포하는데, 무덤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송국리문화분포권의 영향이 강한 서쪽의 분절유적에서는 매장주체부 내에서 적색마연토기 10점이 출토되었는데 9점이 바닥이 둥글고 동체가 양파형인 전형적인 적색마연토기인데, 1점만이 부산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호형토기 형태이다(<그림 5> 참조). 역시 부산에서도 서쪽 지역이 송국리문화 영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V. 부산 청동기시대 무덤의 구조적인 특징

본 장에서는 우선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매장주체부의 양상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검토하고, 부산지역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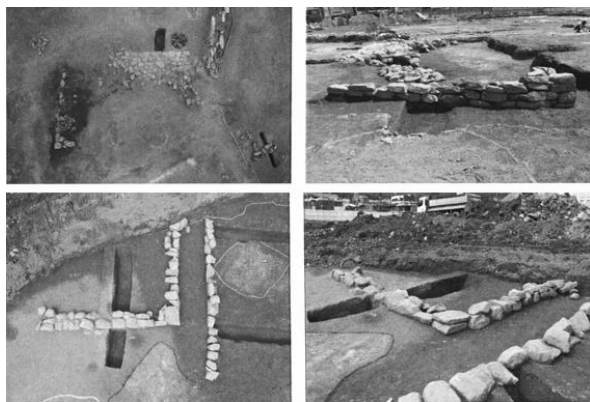
〈그림 6〉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1:분절유적 2호, 2:연지동유적 다-1호, 3:석대동유적 19호, 4:고촌유적 토광묘, 5:두구동 임석유적 석개토광묘)

다. 부산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영남지역에서 무덤이 40기 정도 조사된 유적을 같이 검토하여 비교하였다. 부산은 무덤이 40기 이상 조사된 단일유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 전역에서 확인된 무덤이 59기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무덤은 47기뿐이다. 조사된 무덤의 숫자는 적지만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다양한 편이다.

반면 상석+지석+매장주체부가 온전히 잔존하여 명확하게 지석묘라고 할 수 있는 유구는 조사되지 못했다. Ⅱ장에서 언급한 대로 지석묘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석 혹은 구획석을 갖춘 무덤을 지석묘라고 할 수 있다면 분절유적과 온천2구역에서 조사된 무덤 다수는 지석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온천2지구에서 조사된 구획석 5기 아래에서는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밀양 신안유적에서 묘역식지석묘라고 알려진 구획석 아래에 매장주체부가 존재하지 않는 유구가 확인된 이래 함양 백천리, 산청 매촌리, 경주 화곡리·도계리·전촌리유적 등 동일한 유구의 조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온천2지구에서 조사된 구획묘로 보고된 5기도 동일한



〈그림 7〉 온천 2구역에서 조사된 묘역식지석묘

구조이다. 무덤의 기능에서 점차 제단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한다(김병섭 2009). 하지만 필자는 이렇게 돌을 이용해 일정한 형태의 묘역을 조성하였지만 매장주체부가 없는 유구에 대해 애초에 무덤을 염두에 두고 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수홍 2023). 실제 경주 전촌리 지석묘나 석장동 876-5번지 유적 묘역식지석묘에서 화장을 한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즉 지하에 매장시설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화장을 하여 뼈를 안치하였거나 산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⁵⁾ 전촌리유적의 묘역에 있는 등근 흙 시설이 시신을 안치한 곳이라는 견해(최종규 2023)가 있다.

부산에서 뚜렷하게 매장주체부의 구조가 확인된 무덤 47기와 경남·경북지역의 대표적인 무덤유적 매장주체부의 구조별 비율은 <표 2>와 같다.⁶⁾

부산지역 무덤을 알아보기 전에 비교 대상인 다른 지역 무덤의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이하 매장주체부의 비율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불명 유구를 제외한 비율로 설명하겠다.

사천 이금동유적은 석관묘의 비율이 73.6%(판석석관 32.9%, 할석석관 39.7%)로 높다. 판석석관과 할석석관의 비율이 비슷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토광묘는 21.9%(토광 5.5%, 할석토광 16.4%)를 차지한다. 진주 이곡리유적은 이금동유적과 마찬가지로 석관묘의 비율이 높은데 판석석관이 72.7%, 할석석관이 9.1%로 판석석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같은 남강변의 가호동유적도 판석석관이 71.7%로 비슷한 비

5) 화장, 가옥장, 매장주체부가 없는 묘역식지석묘에 대한 견해는 拙稿(2017, 2020c, 2023)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6) 마산 진동유적은 보고서 중 마산 진동유적Ⅰ에 수록된 유구만 검토하였다. 마산 진동유적Ⅱ에 수록된 묘역식지석묘는 대부분 매장주체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주체부가 확인된 보고서Ⅰ에 실린 석관묘 45기와 묘역식지석묘3기를 검토하였다. 진동유적Ⅱ에 보고된 무덤을 포함하면 불명유구가 많아져 오히려 통계치의 선명성을 흐리게 할 수 있다.

〈표 2〉 경남·경북 대표 무덤 유적과 부산지역 무덤 매장주체부
 (()는 불명이나 無를 제외한 수와 비율)

유적명	매장주체부									
	판석 석관	합석 석관	위석형	토광	합석 토광	응관	목관	無	불명	계
사천 이금동	24	29	3	4	12	1			5	78 (73)
	30.8% (32.9%)	37.2% (39.7%)	3.8% (4.1%)	5.1% (5.5%)	15.4% (16.4%)	1.3% (1.4%)			6.4%	100%
진주 이곡리	32	4		1	7				1	45 (44)
	71.1% (72.7%)	8.9% (9.1%)		2.2% (2.3%)	15.6% (15.9%)				2.2%	100%
진주 가호동	27	2	1	3			5		1	39 (38)
	69.2% (71.1%)	5.1% (5.2%)	2.6% (2.6%)	7.7% (7.9%)			12.8% (13.2%)		2.6%	100%
마산 진동	17	27			4					48
	35.4%	56.3%			8.3%					100%
김해 올하리	16	50	1	12	25	1			1	106 (105)
	15.1% (15.2%)	47.2% (47.6%)	0.9% (1.0%)	11.3% (11.4%)	23.7% (23.8%)	0.9% (1.0%)			0.9%	100%
부산 전체	9	21		8	9			5	7	59 (47)
	15.3% (19.1%)	35.6% (44.7%)		13.6% (17.0%)	15.3% (19.2%)			8.5%	11.7%	100%
대구 대천동 511-2	21	45		1	1					68
	30.8%	66.2%		1.5%	1.5%					100%

을이다. 남강변에 위치하는 유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판재 채취가 용이한 지형적인 원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가호동유적에서는 명확하게 목관의 흔적이 확인된 무덤이 5기가 조사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토광묘라고 알고 있는 많은 무덤이 실제 목관이 부식되어 잔존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단 목관묘라 하더라도 원

삼국시대의 목관묘와는 구분된다. 원삼국시대 목관묘가 목관에 시신을 안치한 후 관을 묘광에 하관하였다면, 청동기시대 목관묘는 판석석관묘와 같이 묘광 내에 먼저 관을 설치한 후 시신을 안치한 것이다. 실제 판석석관묘의 석재가 목재로 바뀐 것이다. 청동기시대 무덤에 목관이 사용되었다는 견해는 이미 안승모 외(1996), 하인수(2000), 김승욱(2001), 김현(2003)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원삼국시대의 목관묘의 축조방법, 시신 안치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산 진동유적은 석관묘의 비율이 91.7%로 높는데 그 중에서도 할석석관이 판석석관에 비해 많은 편이다. 김해 율하리유적은 석관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8%(판석석관 15.2%, 할석석관 47.6%)인데 할석석관이 판석석관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편이다. 율하리유적은 상대적으로 토광묘의 비율이 35.2%(토광 11.4%, 할석토광 23.8%)로 높다.

대구지역 대천동 511-2유적은 석관묘의 비율이 97%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중에서도 할석석관묘가 판석석관묘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편이다. 마산 진동유적과 비슷한 양상이다.

부산지역에서는 돌을 쌓아 벽석을 축조한 할석석관묘의 비중이 35.6%로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산지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무덤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판석석관묘는 9기로 15.3%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장벽은 판석 수매를 수직하여 축조한 것이다. 반면 판석석관묘 중 신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이며 네 벽면에 각 1매씩의 판석을 사용하여 매장주체부를 축조한 전형적인 상형석관묘는 없다. 온천2구역 5호 판석조 석관은 네 벽면을 각 1매씩의 판석으로 축조하였지만 석관 장축의 길이가 58cm의 소형으로 송국리문화 분포권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상형석관과는 차이가 있다. 온천2구역 4호 판석석관묘는 판석과 할석이 혼용되어 축조되었

다. 피장자 공간은 판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축조하였고, 유물부장간은 네 벽면을 각 1매의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사직동 석관묘는 네 벽면이 각 1매로 축조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식발굴조사된 자료가 아니라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산지역 무덤의 구조적인 특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토광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순수토광과 돌이 섞인 할석토광묘는 모두 17기인데 구조를 알 수 있는 47기 중 36.2%를 차지한다. 보통 석개토광묘라고 하는데, 실제 지형이 삭평되거나 무덤이 훼손되어 개석이 유실되었을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토광묘와 벽면에 잡석이 놓여 있는 할석토광묘로 구분하였다. 묘광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토광묘는 부산지역에서 8기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깊이가 얇은 것으로 볼 때 기존에 석개토광묘라고 하는 구조의 무덤 상부가 유실되었을 것이다. 당시 무덤이 대부분 석관묘인 것을 고려한다면 토광묘의 뚜껑은 돌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동북지역의 대석개묘 매장주체부가 토광인 것이 있다(馬驥 2015). 재래의 토광묘 전통에 짐승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돌을 이용하였을 것이다(복기대 2016, 이수홍 2020a). 김해 율하리유적과 토광묘 비율이 비슷하다. 율하리유적이 부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해지역과 낙동강하류역인 부산 서부권의 무덤 구조가 유사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구동 임석유적은 석곽묘(할석석관묘)로 알려져 있지만, 보고자도 언급하였듯이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과 묘광 사이에 돌과 흙을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정연한 할석석관묘가 아니라 본고의 할석토광묘에 해당된다. 연지동유적 다 2·3호는 양쪽 단벽에는 판석을 세우고 한쪽 벽면에만 정연하지 않은 할석이 채워져 있는 형태이다. 두 무덤 모두 한쪽 장벽쪽은 할석이 없이 바로 생토면(묘광 벽면)이다. 역시 목관

을 한쪽 벽면에 붙여 안치하고 관과 다른 쪽 묘광사이에 돌과 흙을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분절유적의 토광묘 역시 양 단벽 혹은 한쪽 단벽에만 벽석을 세운 사례가 있다. 토광묘에서는 시신을 별도로 안치한 관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에 목관과 같은 유기질의 관이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청동기시대의 하한은 초기철기시대와 상당기간 공존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두구동 임석유적에서는 명확하게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인 두형토기와 석창이 출토되었다. 분절유적 묘역식지석묘의 적석 사이에서도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청동기시대에 축조된 지석묘에서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의례행위가 이어졌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지역 무덤의 또 다른 특징은 유물을 부장하는 곳을 별도로 축조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한쪽 단벽 외곽에 부장칸을 별도로 두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보이는 양상이지만 부장칸이 있는 무덤의 비율이 높은 것(이수홍 2012b, 배진성 2020)은 이채롭다. 매장주체부가 없는 것과 불명인 것을 제외한 47기 중 부장칸이 있는 것이 11기로 23.4%를 차지한다. 실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한쪽 단벽쪽에 바닥이 높다거나, 그 부분만 돌이 다른 곳과 다르게 축조되었다면 역시 부장칸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더 많은 무덤에서 부장칸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면 유기물로 된 물건이 부장되었을 것이다.

Ⅶ. 출토유물의 특징

본 장에서는 부산과 경남·대구지역에서 유물이 출토된 유구의 비율을 비교해 지역마다 부장양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2>와 동일한 유적을 검토하여 각종 유물이 출토된 비율을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이하 각 지역 유적별로 특징을 살펴보겠다.

사천 이금동유적은 동검과 동촉이 3기에서 모두 3점 출토되었는데, 검토 유적 중 청동기가 가장 많이 출토된 곳이다. 청동기의 희귀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영남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가 아닌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청동기가 3점 이상 출토된 유적은 없다. 또 옥이 8기에서 출토되어 10.3%의 비율인데, 거의 10기 중 1기의 비율로 옥이 부장되었다. 석검과 석촉은 각각 3.8%, 7.7%의 무덤에서 출토되었으며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된 무덤은 6기로 7.7%에 이른다.

진주 이곡리유적은 사천 이금동유적과 비슷한 비율이다. 이금동유적에 비해 석검이나 석촉, 토기의 비율은 조금 높은 반면 옥이 출토된 무덤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진주 가호동유적은 석검, 석촉, 옥의 출토 비율이 이금동유적이나 이곡리유적에 비해 높은 반면 적색마연토기가 부장된 무덤의 수가 적은 편이다.

서부 경남권의 이런 유물 부장 양상이 마산 진동유적쪽으로 오면 급변한다. 석검이나 석촉의 부장 비율은 진주 가호동유적과 비슷한데 적색마연토기가 부장된 무덤의 비율이 58.3%로 급증한다. 대신 사천·진주권 유적에 비해 옥이 출토되는 무덤의 비율이 급감하고 청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동아대학교에서 조사한 진동유적 석관묘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서쪽 지역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김해 율하리유적은 마산 진동유적과 유사한 양상이다. 동검이 1점 출토되었지만 초기철기시대의 세형동검이다.

대구 대천동 511-2번지 유적은 석검이 출토된 무덤의 비율이 14.7%이다. 석촉이 출토된 무덤의 비율은 23.5%로 부산지역과 유사한데, 토기가 부장된 무덤의 출토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적색마연토기의 출

〈표 3〉 경남·경북 대표 무덤 유적과 부산지역 출토유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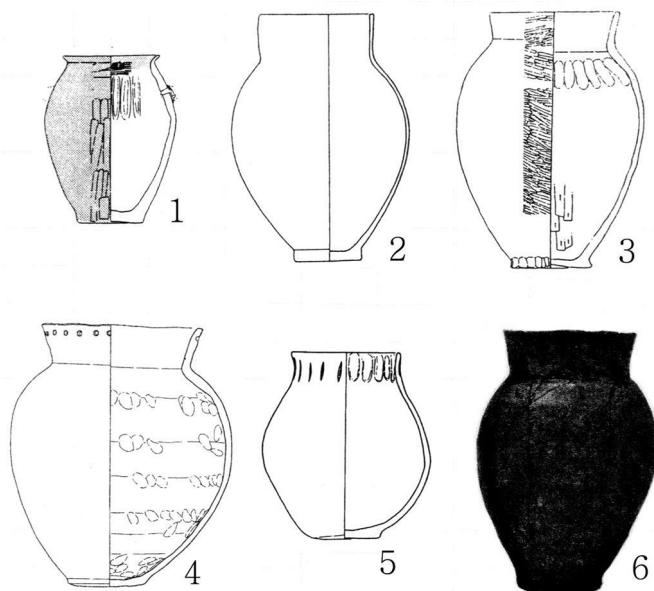
유적명	유물(숫자는 유물이 출토된 무덤의 수)													
	석검	석촉	적색 마연	적색 호형 토기	방추 차	석부	옥	동검	동촉	동기	석착	석도	지석	계
사천 이금동	3	6	6		1	1	8	2	1					78
	3.8%	7.7%	7.7%		1.3%	1.3%	10.3%	2.6%	1.3%					
진주 이곡리	2	4	4		1		3					1		45
	4.4%	8.9%	8.9%		2.2%		6.7%					2.2%		
진주 가호동	4	4	1		1		6			1		1		39
	10.3%	10.3%	2.6%		2.6%		15.4%			2.6%		2.6%		
마산 진동	5	6	28				1							48
	10.4%	12.5%	58.3%				2.1%							
김해 울하리	10	12	44					1			2			106
	9.4%	11.3%	41.5%					0.9%			1.9%			
부산 전체	13	12	11	14	2									59
	22.0%	20.3%	18.6%	23.7%	3.4%									
대구 대천동 511-2	10	16	4				1					1	12	68
	14.7%	23.5%	5.9%				1.5%					1.5%	17.6%	

토 비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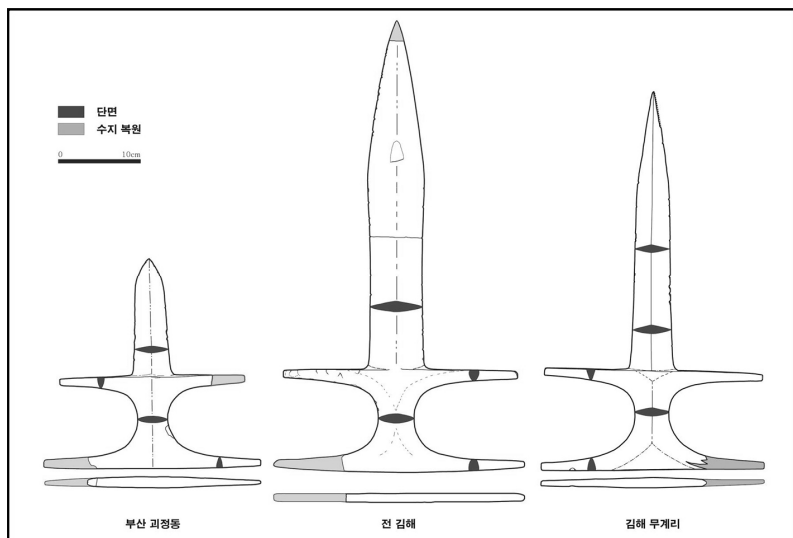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석검과 석촉, 토기가 부장되는 무덤의 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부산지역은 석검이 부장된 무덤이 13기로 22.0%, 석촉이 부장된 무덤이 12기로 20.3%, 토기가 부장된 무덤은 42.3%에 이른다. 매장주체부가 없거나 불명인 유구 12기를 제외한 47기에 대입하면 그 비율이 각각 27.7%, 25.5%, 53.2%에 이를 정도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물이 부장되는 무덤의 비율이 높은 것은 확실하다. 토기가 부장되는 무덤의 경우 창원 진동유적이 58.3%, 김해 울하리유적이 41.5%로 부산지역과 비슷하나 두 유적은 석검과 석촉이 부장된

무덤의 비율은 확연히 낮다. 반면 부산지역은 옥이나 청동기가 부장된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부장된 유물의 비율이 유사한 김해 울하리유적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지역에도 청동기가 출토되는 무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남강유역에서 적색마연토기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된 유적이 많기 때문에 절대 수량에서는 타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표 3>의 출토된 유물의 비율을 보면 마산 진동유적이나, 김해 울하리, 부산지역이 오히려 적색마연토기의 부장이 더 유행했다고 할 수 있겠다. 대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수록 청동기와 옥제품의 부장이 줄어드는 것은 명확하다. 또, 방추차가 명장동 556-17번지 2호 석관묘와 분절유적 10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그림 8〉 부산지역 출토 적색마연토기(1:괴정동패총, 2:괴정1동, 3:괴정2동, 4:동래고읍성지, 5:사직동, 6:연지동 다-1호)(이수홍 2012b)



〈그림 9〉 병부과장식석검(이종철 2019)

방추차는 북한 지역 중 함경북도 무산 지초리유적의 석관묘, 회령시 남산리 검은개봉유적 토광묘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는데 평안도와 황해도의 무덤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없다(이수홍 2020b). 방추차를 부장하는 습속은 한반도 동북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지역 무덤 출토품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호형적색마연토기이다(이수홍 2012b, 배진성 2020). 적색마연토기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여 성형한 후 기면에 붉은 산화철을 바르고 마연하여 소성한 토기를 말하는데(河仁秀 1989), 홍도, 붉은간토기, 단도마연토기 등으로 불리었다. 붉은색이 가지는 상징성, 무덤에서 출토되는 부장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례용 유물로 주목 받아 왔다. 일반적인 적색마연토기는 바닥이 둥글고 동체가 양파형이며 경부가 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부산지역 무덤에서 출토되는 적색마연토기는 저부가 굽이 있는 평저이며 동체는 장란형, 경부가 직선적으로 곧은 호형토기이다. 산화철이 박리되어서 그런

지 적색마연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있어 일반 호형토기로 보고된 사례도 많다. 안료가 도포되지 않은 갈색마연토기(宋永鎭 2016)일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전국에서 무덤에 이런 형태의 토기가 부장되는 지역은 부산지역에 한정된다. 배진성(2012)은 부산식 적색마연토기라 명명하였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강한 지역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⁷⁾

이 외에 부산과 낙동강하류역에서만 출토된 유물로는 손잡이가 실효 성과는 무관하게 과장된 마제석검이 있다. 괴정2동에서 적색마연 호형토기와 함께 출토된 마제석검은 손잡이가 비실용적으로 길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동일한 형태의 석검은 김해 무계리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고 김해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또 다른 석검과 함께 우리나라에 3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석검은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단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沈奉謹 1989). 이런 형태의 석검을 ‘병부과장식석검’이라 명명하고 석검의 제작지, 유통경로 등을 검토한 연구도 있다(이종철 2016·2019). 이 석검의 제작지는 여수반도이며 그곳에서 제작되어 낙동강 하류역인 김해·부산지역으로 공급되었다는 것이다. 병부에 장식이 가해진 장식석검의 분포는 암각화의 분포범위와 일치하며 암각화 역시 모양이 과장되는 것으로 볼 때 혼펠스제 병부과장식석검은 의례적 상징성이 극대화된 것이라고 한다(黃昌漢 2019). 아무튼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도 유례가 없는 석검 3점 중 1점이 괴정동에서 출토된 것이다. 앞으로 석검의 재질 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토유물의 비율, 전체 무덤에서 토광묘가 차지하는 비율과 함께 부

7) ‘~식 토기’ 등 특정지역이나 시간성을 가지는 유물을 명명할 때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유적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초로 출토된 지역은 사하구 괴정동이지만 충청도에 학사적으로 유명한 괴정동유적이 있기 때문에 ‘부산식토기’, ‘괴정동식토기’보다는 ‘연지동식토기’ 혹은 ‘사직동식토기’라 호칭하면 좋을 것 같다.

산지역이 낙동강하류역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 중 하나이다.

VII.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부산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문화의 접경지인데 무덤의 분포양상에 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분절유적으로 대표되는 서쪽은 송국리문화의 영향이, 기장읍을 비롯한 동북지역은 검단리문화의 영향이 강하다.

무덤의 구조적인 면은 할석석관묘, 토광묘의 비율이 높고, 무덤 한쪽에 부장간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석검, 석촉, 토기가 부장되는 비율이 높는데, 그 중 호형적색 마연토기는 부산지역에서만 출토되는 대단히 지역성이 강한 양상을 보여준다.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적이 유실되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동해안문화와 남해안문화, 해양문화와 내륙문화, 하천과 산지가 접경하는 이곳은 선사시대 이래 다양한 문화를 영유한 사람들의 삶의 무대로 이용되었는데, 청동기시대 무덤은 특히 그런 부산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형적·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한 부산지역의 양상은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병섭, 「密陽地域 墓域式 支石墓에 대한 一考察」, 『慶南研究』創刊號,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 金承玉,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 『韓國考古學報』45, 2001.
- 金賢, 「4. 泗川 梨琴洞 無文時代 木棺에 대한 檢討」, 『泗川 梨琴洞 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의 고인돌』, 2012.
- 馬驥, 「中國 東北地域의 石墓 傳統 研究-高句麗 積石塚의 起源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5.
- 裴眞晷, 「墳墓 築造 社會의 開始」, 『韓國考古學報』80, 2011.
- 배진성, 「부산 출토 적색마연평저호의 검토」, 『港都釜山』39, 2020.
- 복기대, 「요서 지역 석제무덤의 특징 연구」, 『신석기·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 묘제 문화 연구』, 주류성, 2016.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1997.
- 서영남, 「釜山の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港都釜山』17, 2001.
- 宋永鎮, 「韓半島 靑銅器時代 磨研土器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6.
- 沈奉謹, 「日本 彌生文化 初期의 磨製石器에 대한 研究-韓國 磨製石劍과 關聯하여」, 『嶺南考古學』6, 1989.
- 安承模·俞炳夏·尹卻映, 「完州 盤橋里 遺蹟」, 國立全州博物館, 1996.
- 安在皓,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 俞炳瑑, 「豎穴建物 廢棄行爲 研究1-家屋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20周年 記念論文集』, 2010.
- 李秀鴻,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 _____, 「靑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2a,
- _____, 「부산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의 지역상」, 『港都釜山』28, 2012b.
- _____, 「靑銅器時代 前·後期 劃期の 基準에 대한 檢討」, 『牛行 李相吉 教授 追慕論文集』, 진인진, 2015,
- 이수홍,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에서의 무덤 축조 변화-월배지역 적석유구와 적석주거지를 검토하여」, 『嶺南文化財研究』30, 2017.

- _____, 「청동기시대 묘제의 다양성에 대한 원인과 결과」, 『한국고고학에서 다양성의 이해』(제4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2020a.
- _____, 「경주지역 지석묘 문화의 특징과 종말기의 양상」, 『文化財』 55-4, 2020b.
- _____, 「울산 청동기시대 매곡동유적의 일상」, 『문물』 10, 2020c.
- _____, 「영남지역 묘역지석묘의 특징과 구산동지석묘의 성격」, 『考古廣場』 32, 2023.
- 이종철, 「병부과장식석검과 그 제작 집단에 대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2, 2016.
- _____, 「병부과장식석검의 생산과 유통」, 『한국고고학보』 112, 2019.
- 鄭澄元, 「제2절 선사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 4, 부산시, 1991.
- _____, 「선사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동래구, 1995.
- 崔鐘圭, 「고찰 1. 慶尙道에서 支石墓의 존재를 否定함」, 『金海 龜山洞 支石墓』, 2023.
- 河仁秀,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 _____, 「IV.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 _____, 「남강유역 무문토기시대의 묘제」,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고대 한일문화교류의 제양상』, 경상남도·인제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2000.
- 황창한, 「청동기시대 석기 생산 체계 연구」,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9.

투고일: 2025. 04. 26. 심사완료일: 2025. 06. 02. 게재확정일: 2025. 06. 20.

| Abstract |

The Grave Culture of the Busan Area in the Bronze Age

Lee, Soo-Hong

In the Busan area, 59 tombs from the Bronze Age have been confirmed and investigated at 17 relics. Of them, 47 had their subjects of burial have been verified. Although the number of buried artifacts examined is small, the structures of the subjects of burial are diverse.

In the second part of the Bronze Age, Busan was a cultural border zone between the Songguk-ri culture spread from the west and the Geomdan-ri culture influenced by the north. This pattern appears in its tombs, as well. While various tombs were found in the distribution zone of the Songguk-ri culture, not many tombs were found in the northeastern part including Gijang-gun.

Stone coffin tombs made of broken stones take the biggest proportion at 21, followed by stone coffin tombs with plate stones at nine and pit tombs at 17.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percentage of pit tombs is higher than in other areas. On the other hand, stone coffin tombs with plate stones, which are used to assemble the four walls, have a low percentage. Another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tombs in the Busan area is that a high percentage of the tombs have a separate space to bury artifacts in the short walls. Recently, they investigated a cemetery-style dolmen with no subject of burial in the No. 2 district of Oncheon. The researcher judged that it was built as the first tomb in the area.

The tombs in the Busan area also show their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burial of artifacts. The percentage of tombs with stone daggers, stone arrowheads, or pottery buried in them is higher than in other areas. Red burnished pottery excavated in the Busan area has heels at the flat bottom and is shaped like a long egg in the central part. It is unique to the Busan area with its cases hardly found in other areas. With a strong locality, it earned other names such as "Busan-style pottery" and "Yeonjidong-style pottery" based on the name of the relic where it was excavated. This is also the place where they excavated the so-called "stone daggers with exaggerated hilts" that lost practicality due to the extremely long end of the handle.

Key Words: Busan, Bronze Age, grave culture, cultural border zone, pit tomb, Busan-style red burnished pottery(Yeonjidong-style pottery).